

인성중심
창의인재

가치를 빛다,
세상을 빛내다.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소중한 가치를 빛내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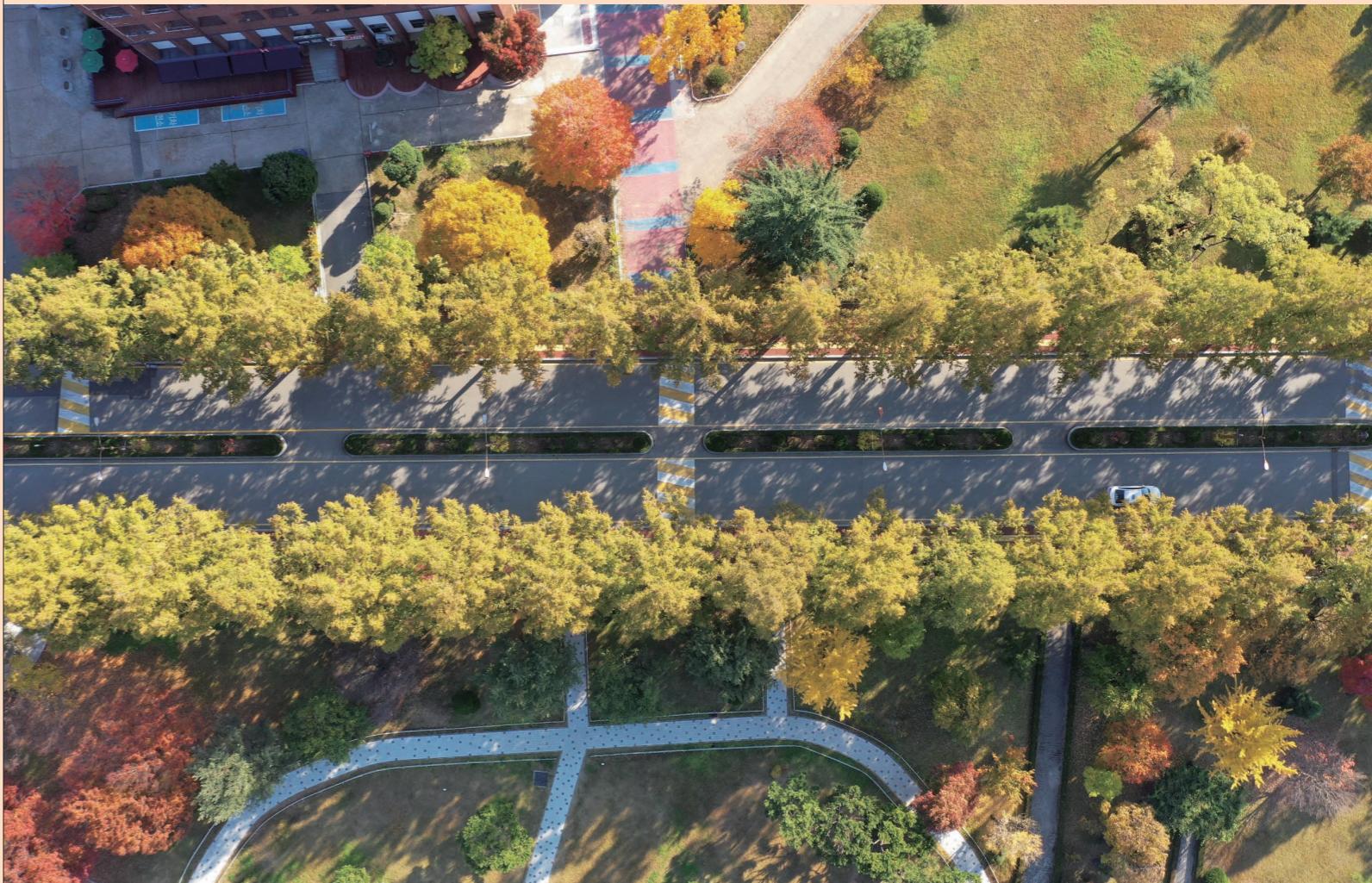
HANNAM DREAM

특별판
한남대 사람들
2023 Autumn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3 Autumn Vol. 38

Hannam University 오정동캠퍼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대모밸리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www.hannam.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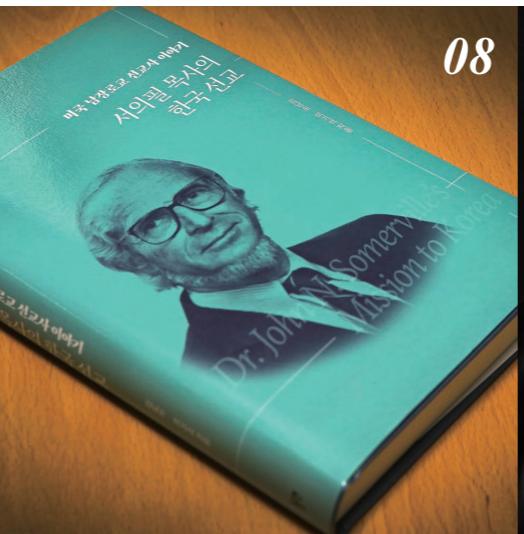


인성중심 창의인재

가치를 빛다,
세상을 빛낸다



04



08



18



32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3 Autumn • Vol. 38



한남대 메타세콰이어길.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광섭

편집인 장수익

글·사진 김민영, 고상범,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한남대 이슈

04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 63개 대학 총장,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한남대에 모인 이유는?

08 한남대 설립위원
서의필 선교사의 삶이 주는 교훈

10 한남대 축구부
'그랜드슬램' 달성

12 한남대 축구 우승의 주역
김동진 선수를 만났습니다.

STORY 2

자랑스러운 한남인

14 '대학장' 수여한 신희현 동문,
학군당 대강당 '신희현홀' 명명

16 우영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前이사장, '한남대는 신앙의 모태'

18 화학과 이수민 석좌교수의
'한남대 사랑법'

20 2023년 자랑스러운 한남인은?

STORY 3

동문 이야기

22 로체스터 공과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권은숙 동문의 메시지

24 '차방' 김재의 대표의 차블랜딩
성공스토리

26 청년 창업가의 멋진 도전
(주)아트와 강동우 대표

STORY 4

상아탑 한남대

28 환경 나노입자 분석방법 개발로
'세계적 주목' 받은 나양호 교수

30 화학과 김운중 교수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32 학생들이 개발한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 2025년 영국 상용화

3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고판에 걸린 정치언론학과 학생
제작광고

35 경찰학과 학생들이 제시한
'이상동기범죄' 대응법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 63개 대학 총장,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한남대에 모인 이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남대학교에서 주목할만한 2개의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 8개국 63개 대학이 소속된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 회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총회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제4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RUCK)가 전국 8개 사립대학 총장 및 보좌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남대에서 열렸다.

2개의 행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행사였는지 이광섭 한남대 총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 총회가

10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어떤 행사였나?

A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행사가 열리지 못했으나, 5년 만에 한남대 메이커스페이스와 무어아트홀, 오노마호텔 등에서 총회와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지역 대학 총장과 국제교류 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8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이 'VUCA 시대에 배워서 참여하고 나누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복잡다단한 상황을 이르는 'VUCA'(변동성 Volatile,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시대에서 기독교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또 세션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패널 등이 참여하는 주제 토의가 진행됐으며, 문화공연 및 만찬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제25회 총회가 열려 회장교인 우리대학의 성과보고, 정관 및 부칙승인 등의 절차와 차기 회장교 [일본 도시사대학(총장 우에키 토모코)] 및 집행위원회 발표 등이 진행됐다. 해외 참가자들은 한남대 캠퍼스 투어와 더불어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20일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한복 입어보기, 비빔밥 식사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ACUCA



Q

ACUCA에 대해 소개해달라.

A

ACUCA는 197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결성됐으며,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대만 등 8개국 63개 대학이 참여해 기독교 대학의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공동학술활동, 학생교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한남대, 계명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소속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대학생 문화캠프 운영, 웹사이트 운영, 영문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다.



1.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총회에서 환영사하는 한남대 이광섭 총장

2.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총회에 참여한 아시아지역 대학 총장과 100여명의 국제교류책임자

3.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총회 만찬

Q 이광섭 총장이 회장을 역임하는 기간이 코로나랑 맞물린다. 교류 자체에 어려움이 커울 것 같은데 어떤 교류가 진행됐나?

ACUCA

A 위기가 기회였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세계를 덮쳐 대학교육의 손발을 뚫었지만 온라인 가상공간은 K교육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ACUCA 회원교와 온라인을 통해 더욱 활발한 소통을 했다. 우리대학은 국내 최초로 'マイクロロジグリ(MD)'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한 학위과정과 경험을 살려 ACUCA 회원국으로 확산 운영했다.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은 최소단위의 실무형 교육과정(학점당 학위제)으로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이수하면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한남대는 학과마다 연계·융합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매 학기 30여개 이상 운영해 왔으며 올해 1학기에만 126개의 과정을 개설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전공과 융합해 첨단학문을 최소 단위의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접할 수 있어 융합과 창의인재 육성에 적합한 차세대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2학기 한남대의 이 교육과정을 ACUCA 회원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시켰고 6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기독교대학연맹(ACUCA)총회 참가자 단체사진



5. 아쿠카 문화체험



6. 아시아 기독교대학연맹(ACUCA)총회 참가한 대학 총장과 국제교류책임자

A

프로그램은 ▲한국어 1,2단계(Korean Language, Level 1,2), ▲중국어 1,2단계(Mandarin Chinese, Level 1,2) ▲컴퓨터기초언어프로그래밍(Basic Python Programming) ▲사업경영(Strategic Family Business Management)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등 6과목을 개설했다. 회원국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불과 3학기만에 대학의 45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회원 기관 간의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주력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됐다. 마이크로디그리 학위는 각자의 캠퍼스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국가마다 다른 환경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하나로 뭉치는 독특한 학습자 커뮤니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용감한 도전은 우리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도전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대학의 가치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Q 같은 기간 한남대에서 열린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RUCK)는 어떤 행사였나?

RUCK

A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지역사립대학들의 특성화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제4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가 전국 8개 사립대학 총장 및 보직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대학에서 열렸다. RUCK는 1995년 학술과 행정교류, 대학 운영의 효율성 모색을 위해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결성한 연합체이며, 한남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계명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호남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7.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토론회

8.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8개대학 총장단 사진

9.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단체사진

Q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나?

A

이번 회의는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특성화 전략'을 지정 주제로 정하고 한남대가 '융합교육과정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가톨릭관동대가 '평생교육 혁신사례', 아주대가 '세계화 전략', 호남대가 '인문사회분야 대학특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주제로 'ESC 기반 지역대학 혁신방안'에 대해 경남대가 'RISE체계 전략', 계명대가 'ESC기반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모델', 울산대가 '글로컬대학30, 울산 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견인하는 지산학일체형 대학', 전주대가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대학혁신' 등에 대해 발표했다.

LINC3.0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8개 대학은 회원 대학 간 유대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역대학연합은 국내 대학 간 협력체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지역대학들의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하는 시간이 됐다.

한남대 설립위원 서의필 선교사의 삶이 주는 교훈

서의필 교수님은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이 한국인보다 더 지극했다. 4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4.19, 5.18 등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하셨고, 마지막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한남대 대학설립위원 7인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존 서머빌(한국명 서의필) 선교사가 지난 5월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그를 기억하는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미국인’이라고...

1 ————— 서의필 박사와 한국, 한남대와의 인연

서의필 박사는 1928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서 태어났다. 26세의 젊은 나이인 195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돼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간 한남대 영문과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최근까지 후학을 양성했던 덕분에 동료와 제자, 한남대 구성원들 마음속에 깊이 서 박사와의 추억이 남아있다.

서 박사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이 참전했던 비극적인 전쟁과 한국은 어떤 나라였기에 동생이 목숨을 바쳤는지 궁금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선교와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뒤 한남대(당시 교명은 대전대학)의 대학설립위원을 맡아 대학 설립에 참여했다. 대학 설립 이후 1968년부터 한남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국의 역사와 문학, 언어에 능통했던 서 박사는 ‘한국족보사’를 연구해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족보사를 연구한 덕분에 처음 만나는 한국인에게 ‘성씨와 본관은 어디인가?’를 물었던 외국인이기도 하다.



2 —————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서의필 박사

‘한국을 사랑한 미국인’으로 알려진 서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함께했던 인물이다. 1960년대 4.19 혁명과 격동기의 한국사회에서 선교와 교육활동을 해야했던 서의필 박사는 독재정권에 항의하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발전과 민주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조직해 북한 동포 지원사업에 헌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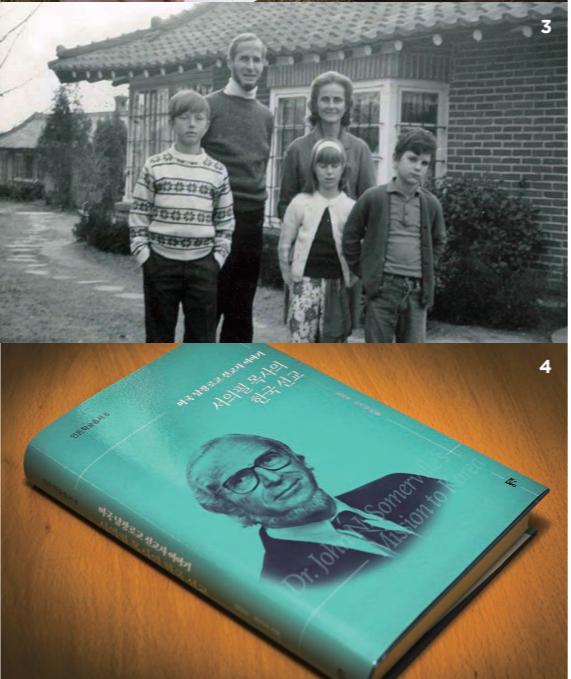
I STORY1 한남대 이슈



2.
1953년
대학설립위원
한남대학교
(옛 대전대학)
대학부지
선정모습
(사진 맨 오른쪽)

3.
1960년대
서의필 교수
가족사진
(선교사촌 서의필
하우스 앞에서)

4.
서의필 교수의
전기



한국 사랑이 각별했던 서 박사는 미국 집의 문패를 한자로 ‘牧師 徐義必’(목사 서의필)이라고 새겨놓았다.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커던 서 박사는 고고학 유물과 고문서, 교회사, 민속품, 교사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한남대 중앙박물관에 기탁했으며, 소중한 역사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남대는 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56주년기념관 대강당을 ‘서의필홀’로 명명했으며, 서 박사가 생활했던 선교사촌의 ‘서의필 하우스’는 인도 학술원으로 활용하는 등 학내 곳곳에 서 박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3 ————— 서의필 교수의 삶 되돌아본 전기 출판

한남대 김남순 명예교수와 제주대 이기석 명예교수는 〈서의필 목사의 한국선교〉라는 제목의 전기를 발간했다. 두 저자는 서 선교사의 후배 교수이고 제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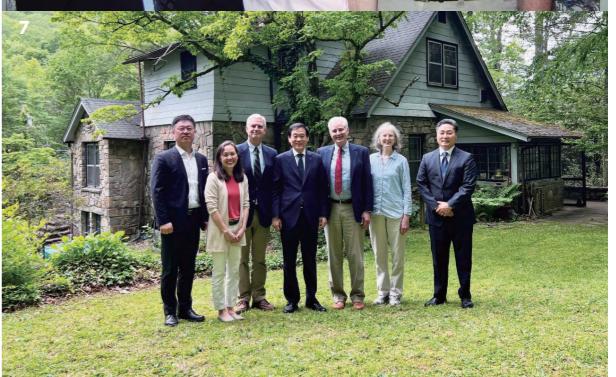
한남대는 지난 6월 7일 오전 10시 30분 생전에 서의필 선교사가 생활했던 선교사촌 내 서의필하우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저자들이 참석해 책 소개를 하는 한편 제자이며 동료 교수인 한남대 김조년 명예교수와 오승재 명예교수가 생전의 서의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에는 선교사이며 역사학자로서 서의필박사의 교육선교와 학문 연구, 민주화운동 격동기의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제1부는 ‘격동기 속의 하나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교수 시절 한국 생활을 중심으로 김남순 교수가 집필했다. 2부는 서 선교사의 대표적인 한글 설교문이 모아졌다. 3부는 ‘서의필 교수의 종교·인간·사회’라는 제목의 선교철학과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이기석 교수가 집필했다.



6.
미국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2020년)

7.
한남대
이광섭총장 및
방문단은
서의필 선교사의
자택에서
자녀들을 만나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남대 축구부

‘그랜드슬램’ 달성

“한남대가 대학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박규선 감독이 지휘하는
한남대학교 축구부가 대학축구
최초로 대학축구 무대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한남대는 2023년 한 해 동안
1·2학년 축구연맹전과
춘계 및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등
3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린 데 이어
전국체전까지 우승하며
2000년 한남대 축구부 창단 이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남대 축구부는 지난 10월 19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결승전에 대전 대표팀으로 참가해
충남 대표 단국대를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한남대 배도현 선수가
전반 10분 첫 골을 넣으며 포문을 열었고
후반 54분 김민재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의 문턱에 바짝 다가갔다.
후반 62분 단국대가 만회골을 터트렸으나,
한남대는 밀착 수비로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기존의 아슬아슬한 승부차기
승리와는 사뭇 달랐다.



1. 2학년 축구연맹전 우승

2.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우승



4. 한남대 축구부 단체사진

5. 한남대 축구부 박규선 감독

6. 한남대 축구부 선수들이 따낸 금메달

7. 2023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우승

8. 2023 제18회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우승 트로피

GRAND SLAM

골 결정력의 강화로 득점력에서 앞서며 완벽한 승리를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한남대 축구부는 돌풍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한남대 전성시대’임을 입증했다. 올해 열린 5개의 전국대회 가운데 1·2학년 추계대회 8강 성적을 제외하고 4개의 전국대회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대학축구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올해 3월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을 시작으로 7월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우승컵을 2년 연속 들어 올렸다. 8월 열린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과 이번 전국체육대회 우승까지 차지하며 축구 무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규선 감독은 말한다.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를 앞두고 우승을 목표로 힘든 훈련을 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잘 이겨줘서 고맙고 고된 훈련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올해 대회들을 통해 선수들도 감독도 많이 성장했기에 이 기세를 몰아붙여 한남대가 축구 명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한남대 축구 우승의 주역, 김동진 선수를 만났습니다.

추계연맹전 MVP 수상,
덴소컵 우수선수상 수상

한남대 축구부가 지난해부터 우승컵을 들어 올린 횟수가 5회다. 지난해와 올해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에서 2년연속 우승과 2023 춘계·추계대학축구연맹전, 전국체전까지 휩쓸었다. 지금껏 두드러진 성적이 없었던 한남대 축구부가 2년 연속 1, 2학년 우승을 차지하고 한해 4개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다. 제59회 추계연맹전에서는 MVP 수상자이자 소위 '노란머리'로 통하는 김동진 선수가 주인공이다.

김 선수는 2023년 제22회 덴소컵 한일대학축기정기전 한국대학축구 대표팀에 발탁됐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강한 활동력을 보여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대회 우수선수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그는 "덴소컵 참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에게 2대 1로 패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빠르고 공격력 좋은 일본 축구를 경험해 더욱 연습해야 할 부분을 찾게됐다"고 말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빠른 두뇌 회전을 기반으로 탁월한 패싱력을 보이며 대회 내내 눈에 띄는 기량을 발휘했다. 일본대학축구선발팀 감독이 한일전에서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한 선수가 '노란머리 김동진'이었다.



1.
소위 '노란머리'로 통하는
김동진 선수

2.
한남대에서 배운
축구를 발판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K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의 김동진 선수



최근 우승을 차지한 아시아게임 축구 대표팀과 도 김동진 선수는 인연이 있다. 황선홍 감독은 김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파트너로 선발했다. 김 선수는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황인범 선수이다. 같은 미드필더이고 포지션이 같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라며 "경험이 많은 해외파 선수들과 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선수의 활약으로 최근 유명 프로 구단 입단이 진행 중이며,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동진 선수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다. 어린 시절부터 동네형들과 어울려 공을 차고 놀았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원주 태장초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갔다. 그가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기 까지 고등학교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큰형의 영향이 컸다.

"형 따라 저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형이 축구를 해서 제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든든한 마음이 큅니다"

경북 상주와 김천에서 중고교시절을 보냈지만, 한남대와의 인연은 뜻밖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때 한남대와 연습경기를 했고, 한남대의 축구스타일에 매료돼 한남대를 지원하게 됐다.

"한남대 축구부는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강한 팀이었어요. 패스플레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빌드업 스타일의 팀이었는데 한남대에서 꼭 축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한남대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김동진 선수는 원발 킥커이자 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활동량이 많고 체력 소진이 많은 미드필더에게 정확하고 빠른 킥력은 상당한 장점이다. 젊은 감독인 박규선 감독과 케미를 더해가며 감독의 지시를 모두 소화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바른 선수'이다.

김동진 선수는
K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성실하고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한남대에서 배운 축구를 발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년 대학장 수여자

‘대학장’ 수여한 신희현 동문, 학군단 대강당 ‘신희현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모교와 동문들의 큰 성원 덕분입니다”

육군 대장으로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신희현 동문(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대학 최고의 영예인 ‘대학장’을 수여받았다.
학생군사교육단 대강당은 ‘신희현홀’로 명명됐다.
한남대는 지난 8월 대학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광섭 총장이 신희현 육군대장에게 대학장을 수여했다.
대학장은 창학 이념에 입각해
대학 발전에 뛰어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포상이다.



1. 2.
한남대는 신희현 육군대장에게
대학 발전에 뛰어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포상인 대학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3.
신희현 동문은 국가안보와 강군육성,
병영문화 개선 등에서 탁월한 덕장의 리더십을 발휘했고,
애교심도 남달라 동문의 모범이 되었다.

4.
학생군사교육단 대강당을 ‘신희현홀’로 명명하고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학군단에서는 ‘신희현홀’ 명명식과 현판 제막
식도 열렸다.

한남대 회계학과 85학번 동문인 신희현 육군대장은 한남대 ROTC 출신 최초로 2016년 장군 진급을 한 뒤 2018년 소장으로 진급해 제36사단장, 제2신속대응사단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2월 중장으로 진급해 제3군단장을 맡았고, 5개월 만인 2022년 5월 대장으로 진급해 제2작전사령관에 취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4성장군 중에서 유일한 ROTC 출신이다.

한남대에 따르면, 신 대장은 모교에 대한 깊은 애교심으로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군후보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한편 한남대 ROTC가 전국 최우수학군단으로 자리잡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광섭 총장은 “신희현 동문께서 국가안보와 강군육성, 병영문화 개선 등에서 탁월한 덕장의 리더십을 발휘했고, 애교심도 남달라 동문의 모범이 되었다”며 “대학장 수여와 신희현홀 명명을 계기로 우리 대학과 구성원들이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말했다.

신희현 육군대장은
“모교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주세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군 발전, 모교 발전을 위해
가일층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남대학교는 저의 신앙의 모태가 됐던 소중한 곳입니다. 한주에 2~3회 채플을 통해 주옥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길을 못 정하고 방황하던 저에게 목표와 방향을 잡아주고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준 고마운 곳입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 및 이사장으로 봉직하며 대학발전에 공헌해온 우영수 전 이사장이 한남대 최고 영예인 ‘대학장’을 수여받았다.

2023년 대학장 수여자

우영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前이사장, ‘한남대는 신앙의 모태’



1. 우영수 이사장
대학장 수여사진

2. 우영수 이사장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 취임식 사진

3. 인동기념관 2층에서 열린
'대학장 명예의 전당' 제막식

우영수 전 이사장은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70학번이다. 20대 젊은 청년 우 이사장은 대학시절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선교에 앞장섰다. “UBF에서 학생 목자로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하루 8시간 이상씩 성경을 불들고 살았어요”

우 이사장은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학교 뒷산 소나무 숲을 찾았다. 무릎 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 학생회 전도부장으로 일할 때는 “전교생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했다. 우 이사장은 “목회의 길을 걷기까지 서정운 총장(당시 교목실장)님과 김준곤 목사님이 진로에 큰 영향을 주셨다”고 회상한다. 그의 신앙 가득한 학장 시절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했고, 한남대 졸업 후 장로회신학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1980년 제주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제주지역 선교에 봉사해오다, 서울영락교회 대학부에서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로 선교 무대를 옮겼다. 우 이사장은 서울 서교동교회 위임목사로 헌신했고 활발한 총회 노회 활동을 하면서 교단 봉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교단 제95회 총회 서기로 총회 행정과 회의 규칙을 정비했고, 김정서 총회장과 함께 프랑스개혁교회와 선교 협정을 맺기도 했어요. 총회 사회부장을 맡았을 때는 네팔 지진현장 구호활동 등 세계적인 구호 활동에 참여했고, 역사위원회를 역임했을 당시에는 안동교회 예배당을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봉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노인학교와의 인연도 깊다. 우 이사장은 지난 2007년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동안 사단법인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설립이사장으로 헌신했다.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는 한국교회의 수천 개 노인대학(경로대학, 실버대학, 은빛대학)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노인복지와 노인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우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을 당시 설립 인가를 받은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는 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종교계에서 유일한 노인복지 사단법인이다. 우 이사장의 활동들은 학교 명예는 물론 국내 교단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우 이사장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로 활동해 오다 지난 2017년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위해 헌신해왔다.

우 이사장은 “모교를 위해 마음껏 봉사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뜻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한남대는 선교사님들이 심어준 진리와 건학정신, 동문들의 모교 사랑,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믿음과 비전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있어 어려움을 해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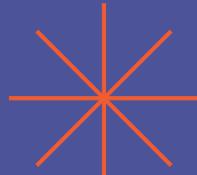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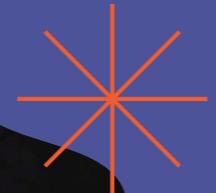


화학과 이수민 석좌교수의 '한남대 사랑법'



“모교(母校)는 어머니같이 사랑을
많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에게 모교인 한남대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곳이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한 곳입니다”
한남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재)한남장학재단 이수민 이사장은
한남대를 어머니로 비유했다.

고분자 합성 분야의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학자이자,
유명한 과학자를 배출한 교수, 한남장학재단 이사장으로
17년간 장학사업을 하는 1인 ‘다역’의 삶을 살아왔다.
한남대는 이 교수의 공로를 인정해
대학 최고의 영예인 ‘대학장’을 수여했다.
이 교수는 한남대 화학과에 입학해
계의돈 선교사의 제자로 인연을 맺게 된다.
화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계의돈 교수의
질 높은 교육은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시 계의돈 선교사님이 선교사촌으로 학생들을 불러
미국 음식을 손수 대접하셨던 추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자에게 주셨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교수생활하면서 계의돈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이수민 이사장 대학장 수여사진

2. 3. 4.
17년째 한남대 재학생들과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재)한남장학재단 이수민 이사장



이수민 교수는 1979년 모교에 교수로 임용된 후 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임용 이후 화학과 학과장과 신소재공학과 학과장, 이과대학 학장,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 등 보임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했으며, 생명나노대학 설립과 대덕밸리캠퍼스 이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 교수는 연구분야에서도 뛰어났다. 2011년 미국 인명정보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자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2년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을 수상했다. 2012년 영국 IBC의 세계탁월한 과학자 100명에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미국 마르퀴즈후즈 후의 세계적인 우수과학자 선정 및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한남대의 명예를 세계에 드높이기도 했다.

제자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이 교수는 연구실에서 금오공대 김재훈 총장 등 다수의 대학 교수를 배출했으며, 창업 지도를 통해 한남하이텍(최만묵대표) 설립 등 기업발전에도 공헌했다.

이 교수는 2006년부터 (재)한남장학재단 과의 인연을 시작한 이후 이사장직을 맡아 한남대 재학생들과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미국의 남장로교 여성도님들이 현금을 모아 대학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셨고, 그 기금으로 특별장학생을 선발했어요. 나도 그 수혜자였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장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남대학교 동문들이 설립한 (재)한남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한상봉 동문을 비롯한 몇몇 동문들이 5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시드머니를 마련했다. 시드머니의 이자와 매년 모아지는 기금을 후배들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남대에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2007년 1회 장학생을 선발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누적 장학금액이 4억531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23년 자랑스러운 한남인

2023년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한남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남대는 11월 3일 '한남의 날' 행사를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패, 상금 등을 전달했다.



I STORY 2 자랑스러운 한남인

2023년 한남의 날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수상자는

- ▲ 목회분야 유갑준 송정제일교회 위임목사(지역사회개발학과 졸)
- ▲ 사회분야 김형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원장(경영학과 졸)
- ▲ 해외분야 송민용 Minyong Song CPA P.C. 대표(회계학과 졸)
- ▲ 경제분야 차태병 오토피아대전 대표(화학과 졸)
- ▲ 언론분야 김태율 (주)홈초이스 대표(언론광고홍보학과 졸) 등 5명이다.



목회분야 수상
유갑준 목사



사회분야 수상
김형길 원장

유갑준 목사는 광주기독병원, 광주기독간호대학, 서울여대 등의 이사와 호남신학대, 한일장신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광주노회장과 광주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한남대의 기독교 건학이념과 명예를 높이고 있다.

김형길 원장은 1984년 제주대 교수로 임용된 후 제주대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우수교수상,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브랜드위원회자문위원, 한국소비자문화학회장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힘써 2012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경제분야 수상
차태병 대표



해외분야 수상
송민용 대표



언론분야 수상
김태율 대표

차태병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계열사인 한국전지(주) 기술연구소에서 2차전지(배터리)의 연구개발에 매진했고, 배터리전문기업 오토피아대전을 창업해 중부권 유수의 2차전지 유통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누적액 1억원)하고 있다.

송민용 대표는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한남대 북미주총동문회 사무총장 및 회장을 맡아 동문들을 적극 지원하였고 뉴욕 턱구협회장, 뉴욕 대한체육회 감사 등 여러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며 한남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태율 대표는 2014년부터 2021년 까지 CMB 대표이사(전국)를 맡아 지역의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뉴스를 제작해 선보일 수 있는 '시청자뉴스'를 정규 편성해 언론 발전에 기여했고,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벽이 높다고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단념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언젠가는 벽을 넘어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인 권은숙 교수는 모교를 찾아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1.
로체스터공과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권은숙 동문

2.
권동문은 후배들에게
벽이 높다고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단념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언젠가는 벽을 넘어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권은숙 교수(한남대 영문과 01학번)는 현재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대학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커리큘럼 운영과 논문지도 등을 하고 있다.

권 교수는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재학 당시 원어민 교수와 대화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느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영문과 학생인만큼 어떻게든 영어 실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학생에 도전한다. 한남대와 학생교류를 운영하는 대학을 찾아 부족한 영어실력이지만 무작정 떠났다.

“두려웠어요. 한국에만 있으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취업하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미지의 세계가 궁금했고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05년 미국 스텔링 대학(Sterling College)에서 교환학생과정을 밟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중 석사(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University of Georgia)과정까지 미국에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갔다.

“석사과정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었어요. 저널리즘을 전공하면서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인드가 커서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기자로 쓰는 언론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논문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죠.”

미국인들의 선입견은 박사의 전공을 매스컴에서 광고 전공으로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된다. 권 교수는 광고 전공으로 전공을 바꾸고 빛나는 연구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13편의 광고, 마케팅저널에 논문을 발표했고 6편은 SSCI저널에 실렸다. 그중에 ‘미디어 컨텍스트의 광고 기역에 미치는 영향: 광고 효과성 메타분석’이라는 논문은 2019년 최우수 학술 논문으로 선정됐다. 또 ‘메타분석을 통한 미디어 컨텍스트의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저널 오브 어드베타이징(Journal of Advertising)’의 최우수 논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16년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됐다. 대학원 학생들과 논문과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한 것 같아서 대학원 학생 지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권 교수는
“한남대학교를 다니면서
중앙도서관과 아름다운 캠퍼스에 대한
추억이 오롯이 남아있다”며
“나의 모교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떠올렸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곳이다.
우리 후배들도 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면 기회가 열린다.
도전하는 한남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방’ 학생창업자가 들려주는 ‘차 이야기’

‘다 함께 차차茶’
김재의 대표(사학과4)

백혈병에 걸려 투병하던
고객이 잊혀지지 않아요.

대접했던 밀크티가
소설 ‘마지막 잎새’처럼
인생의 마지막
달콤한 음료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사꾼이 아닌 창업가로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건강하고 달콤한
대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의 결심이
오늘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어요.

한남대학교 창업존에 입주해 있는 ‘차방’ 김재의 대표(26)는 한남대 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창업가다. 김 대표는 절실했던 고객의 니즈를 계기로 수국 추출물인 ‘필로둘신’의 단맛을 추출해 대체당을 개발하고 차와 블랜딩해 특허출원을 했다. ‘티 시럽’ 제품으로 개발된 그의 제품은 쓰고 뛰는 차의 탄닌 성분을 배합 기술을 활용해 달콤한 쓴맛으로 변신했다.

10월부터 전국 갤러리아백화점과 온라인 갤러리아 몰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한편, 유성구 지역의 동네상점에 입점하는 등 활발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이 교육 부터 전반적인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모교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제품인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모교를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 STORY 3 통문 이야기

한남대 학생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한 ‘다 함께 차차茶’는 모두가 즐겁게 차를 즐기자는 의미로 차를 모티브로 하는 창업기업이다.

‘다 함께 차차茶’ 기업은 ‘차방’이라는 상호로 창업존에 문을 열었으며, 단순히 차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페 개념이 아니다. 차방은 블랜딩 티 위주의 제품을 개발해 생산해 내는 한편, 티클래스, 청년 대상의 창업 교육, 오프라인 매장 판매, 컨설팅까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점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한남대학교 창업존에 입주해 있는
‘차방’ 김재의 대표

2.
쓰고 뛰는 차의 탄닌성분을 배합 기술을 활용해
달콤한 쓴맛으로 개발한 ‘티 시럽’ 제품

3. 4.
‘티 시럽’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차방’ 김재의 대표

5.
티클래스, 청년 대상의 창업 교육,
오프라인 매장 판매,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는
‘다 함께 차차茶’ 기업



역사를 좋아해 역사를 전공하는 사학도였던 김 대표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 중국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항상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상품화하면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국내에서 흑당 밀크티 같은 차를 기반으로 하는 음료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면서 차의 경쟁력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김 대표는 창업 초기 밀크티에 큰 관심을 두고 제품을 만들어 냈다. 당시 개발해 낸 밀크티 제품은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제 담수품으로 선정돼 대덕구청에 납품 중이다. 김 대표는 대전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대전을 콘셉트로 한 차를 11월달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담아서 ‘꿈돌차’라는 이름의 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현재의 차방이 공간이 좁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싶고 차를 통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라며 “인구 소멸지역을 찾아 그지역의 거점공간을 만들어 내고 싶다. 차를 콘텐츠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구심점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가의 멋진 도전, 아트와 강동우 대표

(주)아트와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인연이
청년 창업가의 길로..

“청년창업이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한 경험과 노련함,
지혜를 나눠주시는
멘토들이 많이 생겼어요.”



1.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인연으로 청년 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트와 강동우 대표
2. 제주도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감귤 농가에 투입된 감귤수거용 로봇



한남대 미디어영상학과 졸업생인 (주)아트와 강동우 대표(27세)는 재학시절 한남대 디자인팩토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청년창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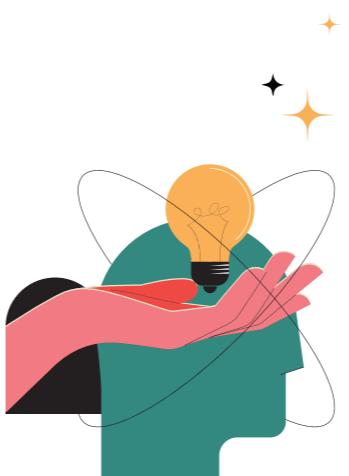
디자인팩토리 과정 중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수륙양용 로봇을 개발했고, 이 제품의 특허출원 이후 (주)아트와를 창업했다.

강동우 대표는 “아트와는 수륙양용 로봇을 활용한 친환경 친안전 로봇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수륙양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은 수질 모니터링, 배수로 오염원 탐사, 고효율 운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 유레카 파크에 출품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수륙양용로봇에서 나아가 공장이나 농가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3.
창업 콘테스트에서
농협중앙회장상과
농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고 있는
강동우 대표

4.
청년 창업가
강동우 대표와
아트와 가족



제주도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감귤수거용 로봇을 감귤 농가에 투입했고, 현대자동차와 연계해 배수로와 맨홀 밑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로봇도 출시했다. 덕분에 지난 10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협중앙회장상과 농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강 대표는 지난 6월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포브스는 매년 예술·금융·마케팅 등 10개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업적을 이룬 30세 이하의 리더를 선발한다.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는 2명의 한국인이 선정됐으며 그 중 하나가 강동우 대표다.

포브스 선정 소셜임팩트 분야 한국인 리더는 2019년 이후로 4년 만이다.



강 대표는 대학 재학 시절 창업 동아리에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해왔다. 이런 성과로 수자원공사의 제10기 K-Water 협력 스타트업 업체로 선정됐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청년 창업 이후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함께하는 직원들의 각자 역량을 부스팅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들은 성장통으로 믿어요. 아트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환경 나노입자 분석방법 개발로 '세계적 주목' 받은 한남대 나양호 교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분해돼 만들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미세한 크기로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고스란히 사람의 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나노플라스틱을 포함한 환경 중의 나노입자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연구기법 제시에 뛰어든 한남대 나양호 교수(신소재공학과)의 '표면증강 라만 분광법(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이 그것이다.



미세플라스틱 이미지



한남대 신소재공학과 나양호 교수

나양호 교수는

(주)오시스템리서치 원남일 박사
(전무, 수산해양학)와
공동 산학협력 연구팀을 구성하고
인하대 신동하 교수(화학과),
한국외대 오정욱 교수(화학과)와
융합연구를 진행했다.

개발된 기술은

환경 중의 나노입자 분석을 통해
해양 · 수중 나노플라스틱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 성과는

7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화학공학저널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6.744)'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고분자 소재 전문가인 한남대 나양호 교수와 지구환경 전문가인 원남일 박사의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수질 환경 미세입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됐다. 이에 분석화학 전문가인 신동하 교수와 오정욱 교수가 합류해 다학제간 융합 연구가 진행됐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분석은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FT-IR)'이나 '일반 라만 분광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는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나양호 교수팀이 개발한 SERS가 중요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채집해 라만 신호를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연구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쉽게 접하는 시료를 이용해 나노 플라스틱을 성공적으로 검출해 실효성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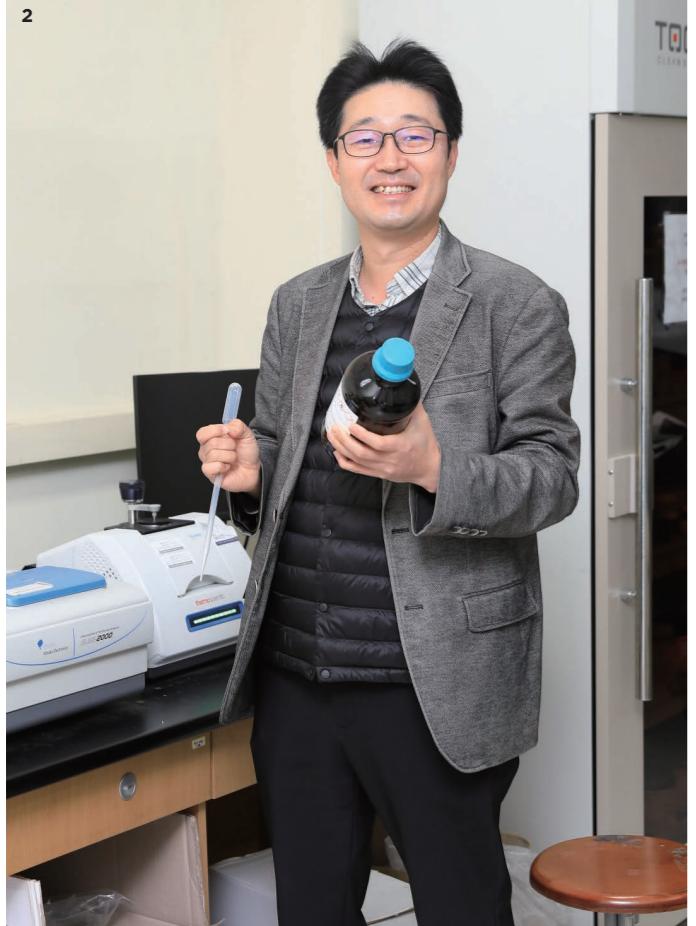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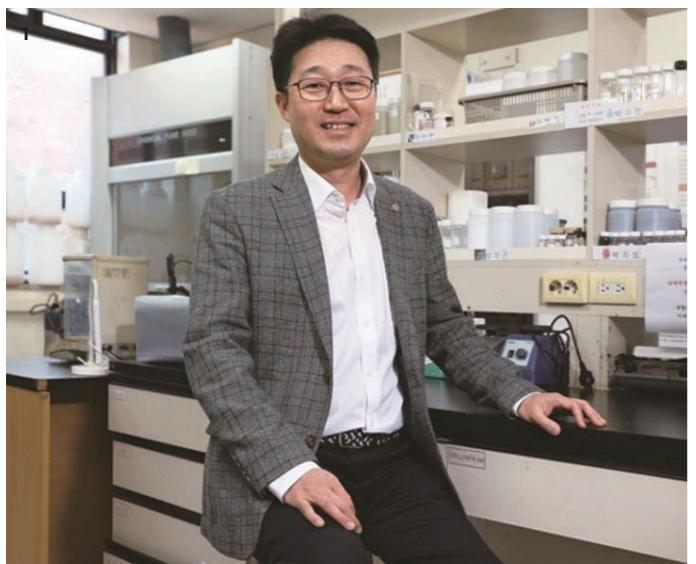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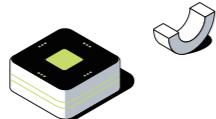
나양호 교수는 "공학 및 실험실 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문제였으나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문제를 알며 기술의 활용성을 고민하는 환경 전문기업의 연구진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시도를 구체화하고 국제적 성과로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연구한 SERS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과일 표면에 붙어있는 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검출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는 "이번에 개발한 나노입자 분석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노플라스틱 검출 방법의 국제표준(ISO)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려고 한다"며 "바다의 플라스틱이 어떻게 자외선, 물결, 물 등의 영향을 받아 더 작은 마이크로/나노 크기로 쪼개지는가의 매커니즘을 연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 금액이 15억 원에 이르며, 특허출원 14건, 특허등록 7건, 기술이전 2건(수입료 80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5년간 발표 논문 건수가 17편이며, 이중 SCI급 논문이 15편에 이른다.

한남대 화학과 김운중 교수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으로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고
고급 인력을 배출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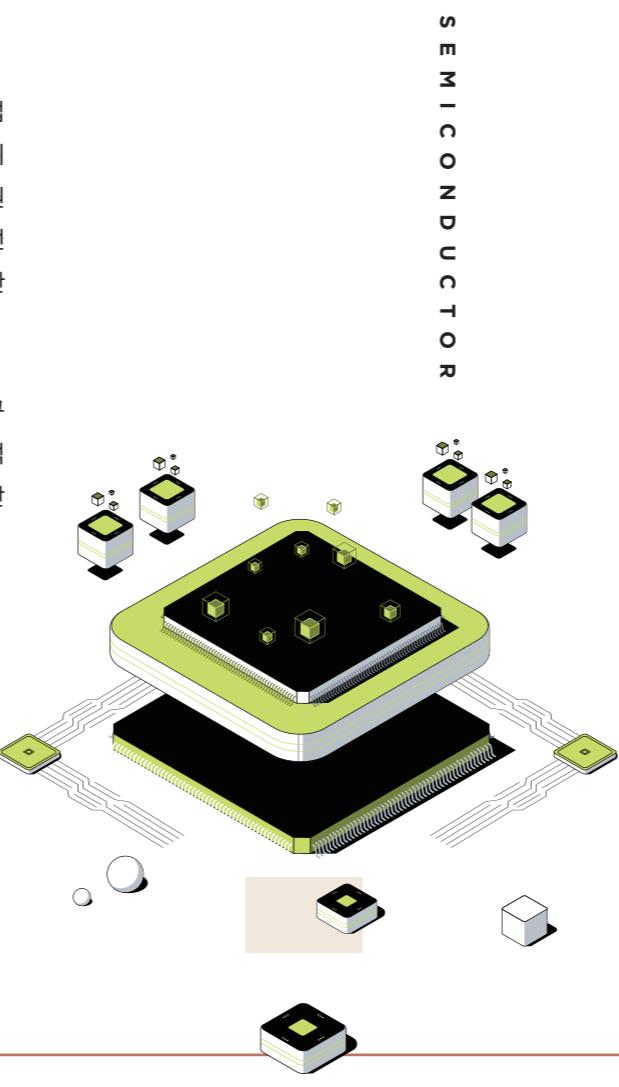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가 나노·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가 ‘2023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기대감을 모이고 있다.

한남대 화학과 김운중 교수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형 국책 사업인 ‘2023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 분야의 삼극특허(미·일·유럽에 모두 등록된 특허)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반도체 연구실의 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총 250억 원 규모)으로 전국에서 10개 실험실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한남대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한남대 화학과 김운중 교수 연구실은 오는 2027년까지 25억 원(정부지원금 22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1. 2.
한남대 화학과 김운중 교수.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26건의 국책사업 수주, 연구비 수주액이 70억여원에 이르며 최근 10년간 특허등록 50건, PCT 국제특허출원 4건, 특허출원 57건에 이르는 연구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3.
한남대학교 반도체 FAB실습.
정부와 지자체가
나노·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가 ‘2023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연마제(슬러리)는 높은 열에 약하고 접착력이 강해 세척 시 유독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세척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슬러리 입자의 분산 안정성이 떨어지면 스크래치 등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해 국내 최초로 스크래치가 없는 친환경 반도체 평탄화 공정(CMP)을 위한 슬러리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비 지원을 통해 기존 CMP 연구에서 나아가 차세대 CMP 슬러리 제품을 개발하고 미국과 일본 글로벌 경쟁사와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CMP 슬러리 제품을 국산화해 수입대체 효과를 노리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참여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이 가능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남대의 인력 배출은 추후 대전광역시에 조성되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이고 있다.

김운중 교수는 “현재는 국내 이액형 CMP 슬러리가 주축이지만, 최근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일액형 CMP 슬러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일액형 CMP 슬러리의 경우, 미세하면서도 균일하며 분산 안정화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일액형 CMP 슬러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 국산화하여 초미세 공정 CMP 슬러리의 분산 안정화 원천기술과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남대 산학협력단 김태동 단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한남대가 CMP 공정용 차세대 슬러리 소재 기술 개발과 삼극특허 확보지원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과의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26건의 국책사업을 수주해 연구비 수주액이 70억여원에 이르며 최근 10년간 특허등록 50건, PCT 국제특허출원 4건, 특허출원 57건에 이르는 연구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대 학생들이 개발한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 2025년 영국 상용화

한 학기 동안 다른 전공과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니 더욱 발전된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대학생들과 겨룬 프로젝트에서
1등을 하니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 아이들이 장난감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통놀이 해피밀 장난감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Produce in a series,
we can expect to be increased
environmental performance,
affordability, awareness,
and loyalty of McDonald's



'한남디자인팩토리'가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지난 9월 영국 맥도널드의 해피밀 디자인 전문 파트너 기업인 TMS(The Marketing Store)가 디자인팩토리 글로벌네트워크(이하 DFGN)에 가입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맥도날드의 '해피밀' 장난감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학생팀이 1등 (HMD팀), 3등(GOLDEN ARCH팀), 5등(MARCH 팀)을 차지했다. 1등으로 선정된 HMD팀의 작품은 2025년 영국 맥도널드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국의 브루넬대학, 스페인의 UPV 대학, 칠레의 lcubo대학, 콜롬비아의 칼리 하베리아나 대학, 보고타의 하베리아나대학 등 DFGN에 가입한 6개국 총 21개 학생팀이 참가했다. 각국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TMS의 디자인팀과 아이디어 미팅, 시제품 개발 등에 대해 온라인 라이브 피드백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TMS는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의 디자인은 물론 에너지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제품 안쓰기 등 환경 보호 실천 메시지를 담을 것을 주문했다. 업체의 주문에 맞춰 학생들이 제시한 제품들은 놀라웠다.

1. 글로벌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에서
우승을 한
HMD팀의
World of the
Game_Korea
Series 제품

2.
글로벌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에서
우승한 한남대
HMD팀 학생들과
Philip Rose
지도교수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한남대 HMD팀은 한국의 전통 놀이(연, 굴령쇠, 투호놀이)를 소재로 삼아 해피밀 장난감 제품을 선보였다. 미디어영상학과, 융합디자인 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등의 학생 7명으로 구성된 HMD 팀은 '월드 오브 게임-한국시리즈(World of the Game Korea Series)' 3개 제품을 개발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한국의 전통놀이 장난감을 통해 영국 시장에 한국의 전통놀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3등을 차지한 GOLDEN ARCH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면이 높아진 가상의 맥섬(mc Island)을 살리기 위해 보트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며 섬을 구하는 이야기를 다룬 제품을 개발했다. MARCH팀은 멸종위기 동물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해피밀 완구 세트를 개발해 5위를 차지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는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어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팀별로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에서 의뢰한 창의적인 시제품을 개발하는 다학제간 창의융합 교육혁신 플랫폼이다.



2



“우리가 제작한 광고가 실제 고속도로 광고판에
송출되는 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를 비롯한 광고·홍보연계전공 학생들이 제작한 디지털 광고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고판에 송출됐다.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유현중 교수 주관으로 광고 관련 전공학생 21명은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하고 한국 OOH광고학회가 지원하는 산학협력 학점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3일부터 21일까지 하루 6시간 과정으로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원에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높이는 실용적인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작 광고 중 우수작(5편)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금조성용 디지털 광고물(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송출되는 특전이 주어졌다.



1.
‘문자확인 전
스미싱 확인부터’

2. 3.
‘여행은 맛남’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2개 팀이 최우수평가와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평가를 받은 ‘여행은 맛남’ (성유진, 장서연, 연슬기, 김선재) 광고물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 광고판에 송출됐다. 또 우수 평가를 받은 ‘문자확인 전 스미싱 확인부터’ (이용택, 고동원, 권예원, 임다연) 광고판은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게시됐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현중 교수는 “학생들의 옥외광고(OOH)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실무교육을 위해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OOH광고학회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높은 만족도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남대 경찰학과 학생들이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지난 10월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유성연 교수는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자 학생들과 함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도출해 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로 근무 중인 졸업생 선배들도 동참해 자문해 주었다.



1.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학생들이 제시한
이상동기범죄
대응법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제시한 행동수칙은

- ① 주변을 경계하세요!
- ② 스마트폰&이어폰 몰입 사용 안 돼요!
- ③ 급할 땐 가방도 호신용품
- ④ 귀갓길 방범시설물을 눈여겨보세요
- ⑤ 위험할 땐 무조건 112 신고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평소 쉽게 간과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한남대 졸업생인 디자인 세연 박성옥 대표의 재능기부로 숙지하기 쉽게 눈에 띄는 카드뉴스로 탄생했다. 학생들은 카드뉴스를 SNS에 올려 홍보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도 공의 제안했다.

이도선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편이다. 평소에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